

# 尹 “총쓸수 없나”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진술 확보

### 경호본부장 “똥리면 기관단총 들어라” 관저에 실탄...영장 재신청 방침 尹측 “비화폰 기록 삭제·총기사용 검토 지시안해...차장 조사때 무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MP7 두 정과 실탄 8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 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정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의미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대부분 경호처 직원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기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잡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즉각 석방됐고 이후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법으로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



경찰, 인가 압수수색 또 불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거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인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은 뒤 인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연합뉴스

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

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

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

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尹측 “접견 제한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 “범죄사실 소명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로 금지...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

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보고 등이 이뤄졌음을 예로 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남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측동원 변호사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사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접견 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연합뉴스

## “尹, 일반수용동 이동...전담 교도관 배치”

### 교정본부장 “하룻밤 잘 보냈다는 보고받아”...3.6-3.7명 동박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밝혔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다”며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명이나 3.7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렵 수용동으로 옮겨졌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거실은 평소 일반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

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신 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와도 협력해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배치했다고 교정 당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Panasonic 헬스케어 90주년 기념**

**REAL PRO MAN1**

**최강 300만원 특별혜택!**

**파나소닉 헬스케어 90주년 기념**

**최강 300만원 특별혜택!**

- 행사기간 : 2024.12.20 ~ 2025.01.31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선택해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파나소닉 헬스케어 90주년 기념 최강 혜택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고사양 REAL PRO MAN1 최강 300만원 혜택**  
**+ 안심보장 4년 무상 AS서비스**

**연말연시를 맞아 소중한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부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